

# 손흥민, 비유럽 선수 최초 토트넘 400경기



손흥민의 400경기 출전을 축하한 토트넘. /토트넘 SNS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의 손흥민(토트넘)이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공식 400번째 경기에

### 토트넘 역대 14번째로 400경기...EPL 출범 후 따지면 3위 구단, 손흥민 세리머니 활용해 푸스카스상·득점왕 등 기억

출전하며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손흥민은 3일 오전 4시15분(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런던 스타디움에서 열린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2023~2024 EPL 31라운드에서 선발로 출전해 풀타임을 소화했다. 토트넘은 경기 시작 5분 만에 브레넌 존슨이 선제골을 터뜨렸지만 이를 지키지 못해 1-1 무승부에 만족했다. 소중한 승점 3점 획득에 실패했지만 2015~2016시즌부터 토트넘에서

편 손흥민은 공식 400번째 경기 출전이라는 새 역사를 남겼다. 토트넘 구단은 손흥민의 기념비적인 400경기 출전을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알리며 축하했다. 구단에 따르면, 손흥민은 토트넘 역사상 14번째로 400경기 출전을 채웠다. 비유럽 선수로는 최초다. 역대 최다 출전을 기록한 선수는 1969년부터 1986년까지 활약한 스티브 페리먼으로 854경기다. 손흥민에 앞서 400경기를 뚫은 토트넘 선수는 총 13명인데 이중 EPL이 출범한 1992년 이후를 기준으로 하면 골키퍼 위고 요리스(447경기), 해리 케인(435경기)에 이어 손흥민이 세 번째다. 요리스와 케인은 각각 LA FC(미국), 바이에른 뮌헨(독일)으로 이적했

기 때문에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꾸준한 활약을 이어간다면 이들의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구단은 SNS에 손흥민의 기록을 축하하며 특별 애니메이션 영상도 제작했다. 한글로 '사백'이라고 적힌 사진첩을 시작으로 영상이 시작된다. 이어 손흥민이 자신의 상징인 '찰카' 세리머니를 펼치면서 역사를 기억했다. 데뷔골, 토트넘 핫스파 스타디움 개장 첫 골, 푸스카스상 수상, 케인과 합작골 기록, 골든부트(득점왕) 수상, 주장 선인 등이 담겼다. 한편, 손흥민은 지난달 31일 루턴 타운과 30라운드에서 역전 결승골을 터뜨리며 토트넘 통산 160호골을 기록했다. 득점 부문에선 토트넘 역대 5위에 해당한다. /뉴스시



대한항공 점보스, 사상 최초 4년 연속 통합 우승 지난 2일 오후 경기 안산 상록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3~2024 V-리그 챔피언결정전 3차전 대한항공과 OK금융그룹의 경기에서 승리하며 프로배구 사상 첫 통합 4연패를 달성했다. /뉴스시

## '충돌 논란' 황대헌·박지원, 다시 경쟁...선발전 내일 개막

5~7일 1차 쇼트트랙 선발전 · 11~12일 2차 선발전



지난달 열린 2024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탐킬 논란'에 휩싸였던 황대헌(25·강원도청)과 박지원(28·서울시청)이 대표 선발전에서 다시 경쟁한다. 2024~2025시즌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은 오는 5일 서울 목동실내빙상장에서 막을 올린다. 7일까지 1차 선발전이, 11~12일 2차 선발전이 진행된다. 계속된 황대헌의 반칙에 '탐킬 논란'이 불거지자 대한빙상경기연맹

은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연맹은 지난달 25일 "황대헌의 반칙에 고의성이 없었다. 탐킬을 하려는 의도 또한 전혀 없었음을 확인했다"며 사태를 진화했다. 여전히 논란의 불씨가 남아있는 가운데 황대헌과 박지원은 2024~2025시즌 태극마크를 놓고 경쟁해야 한다. 이번 선발전은 박지원에게 무척이나 중요한 대회다. 박지원은 그간 불운 속에 동계아시안게임, 올림픽 시즌마다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탈락해

아직 병역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내년 2월 중국 하얼빈에서 열리는 동계아시안게임은 박지원이 병역 혜택을 노릴 수 있는 대회다. 1996년생인 박지원은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을 통해 병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군 복무 문제로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출전도 불투명해진다. 박지원은 2022~2023시즌, 2023~2024시즌 연달아 월드컵 시리즈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두 시즌 연속 세계 최강의 자리를 지킨 박지원은 세계 선수권에서 금메달을 땀을 뺐을 경우 선발전을 거치지 않고 2024~2025시즌 태극마크를 유지할 수 있었다. 연맹은 쇼트트랙 세계 선수권 개인전 1개 이상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 중 성적이 가장 좋은 남녀 1명씩을 차기 시즌 국가대표로 자동 선발한다. 하지만 황대헌의 연이은 반칙으로 인해 대표팀 자동 선발이 좌절된 박지원은 대표 선발전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목포=김재욱 기자

## FC목포 축구단 K3리그 홈 개막전 '승리'

FC목포 축구단이 지난달 30일 울산시민축구단을 상대로 목포국제축구센터 주경기장에서 치른 2024 K3리그 홈 개막전에서 1대0 승리를 거뒀다. 축구단은 본 경기에 앞서 풍물패, 태권도, 초청 가수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FC목포 창단 이래 가장 많은 1600여 명의 관중의 뜨거운 응원이 함께한 가운데, 경기 후반에 임대준 선수가 결승골을 성공시키며 홈 개막전의 대미를 장식했다. FC목포 축구단은 2024시즌에 맞는 홈 개막전을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해 선수들을 위해 라커룸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뜨거운 응원을 보내줄 시민들을 위해 냉장고, 테이블 PC, 무선청소기, 건강검진권, 지역사랑상품권 외 기타경품 65세트를 준비했다. 다음 홈경기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춘천시민축구단과 진행될 예정이다. /목포=김재욱 기자

## 광주체육중 '전국 배드민턴' 금1·은1·동1 2학년 복식 금메달...서울 양동중 2대 0으로 제치



광주체육중학교가 지난달 21일부터 9일간 경남 밀양에서 개최된 '2024 한국중고배드민턴연맹 회장기 전국 학생선수권대회'에서 2학년 복식 금메달, 단체 은메달, 3학년 개인전 동메달을 거머쥐는 영광을 안았다. 광주체육중은 25일 단체전 결승전에서는 경남마산성지여중과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했지만 아쉽게 3대2로 준우승을 차지했다. 학년별 개인전에서 28일 여서영(3학년)학생이 3위, 학년별 복식경기에서 이윤서(2학년), 김민(2학년)학생이 26일 첫경기에서 충추여중을 2대0으로 제압했다. 이후 연달아 3경기 승전보를 이어가며 마지막 결승전에서 서울 양동중을 2:0으로 제치고 복식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조선주 기자



**주메뉴 : 삼형제생갈비, 삼형제꽃살** | 개별룸 단체석  
**예약 061-337-3836**  
나주시 산포면 영산로 5984-91 (나주 혁신도시 빛가동 중흥3차 옆)

제가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숯불생갈비 1인분(180g) 9,900원**



[삼형제 철학]

최상의 맛

최상의 품질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인 가격


